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P8 2/26	A16 7

우리의 주장

일본 동성애자 인권단체 OCCUR의 재판 투쟁에 부쳐
 # 동경도와 동경도 교육위원회는 동성애자에 대한 '공공 시설 이용 거부'라는 시대착오적인 파렴치한 행동을 중단하고 동성애·동성애자에 대한 억압과 편견에 기초한 반인간적·반동성애적 교육을 중단하라!

동경도 고등재판소는 이번 재판에 대해 동성애에 대한 편견과 억압의 재생산에 기여하지 않는 보다 미래지향적 자세로 임하라!

한·일의 언론매체는 동성애·동성애자에 대한 보도에 있어서 싸구려상품식, 마녀사냥식의 보도관행을 즉각 중지하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AIDS의 예방 홍보에 있어서 '동성애=AIDS'라는 식의 왜곡과 편견에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청소년 성교육에 있어서 동성애에 대한 민주적

공교육 기회를 보장하라!

70%

한국동성애자인권운동협의회

동성애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번 우리들의 시위가 지난 노동법·안기부법 개악 반대 집회 참가 결정 때와 마찬가지로 이웃 일본의 동성애자 차별을 둘러싼 재판에 직접 행동으로 동참한다는 것에 대해 많은 토론과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그것은 단지 일본 내의 동성애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우리들에게 닥칠지 모르는 우리들의 문제라는 데에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지금껏 한국의 언론매체나 교육정책은 동성애·동성애자에 대한 정책과 보도 관행에 있어서 추악하리만큼,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삶을 혐오하고 증오하도록 강요하는 정책과 보도 관행을 줄곧 유지해 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동성애자는 여러분 자신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족, 친구, 학교, 직장 동료로서 어느 곳이나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수치는 결코 소수가 아닙니다. 그들 대부분은 이성애중심의 유교적·가부장적인 우리 사회의 주류질서 속에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성과의 결혼 등의 이중적 생활로 자신의 삶을 증오하고 학대하며 파멸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이성애가 그러하듯 동성애·동성애자는 결코 도착이나 병리적인 현상이 아니며, 찬반 논쟁이나 선·후천성 논쟁거리는 더더욱 아닙니다. 단지 이성애와는 다른 사랑의 형태이며 삶의 방식일 뿐입니다. 그리고 역사상 기록에 남아 있는 인물들 중 다수가 동성애자였거나 동성애적 삶의 형태를 택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성애만이 '정상'이라고 강요하는 한국 사회가 동성애자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최소한의 인간적인 긍정도 갖지 못하게 하는 지옥과도 같은 파시즘적 사회라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전례 없는 가족제도의 '위기' 속에서 지금껏 이성애가 누려 왔던 수많은 '기득권'과 '보편성'의 해체 조짐에 대한 책임을 동성애자들에게 전가하려는 시도에 우리는 심히 우려를 표명하며, 그러한 시도에 앞장서는 언론매체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인간에 의한, 인간의 억압과 편견이 없는 열린 사회, 더불어 함께 하는 민주적 공동체를 위해 우리는 조용히, 그러나 당당히 싸워나갈 것입니다.

한·국·동·성·애·자·인·권·운·동·협·의·회

○ "후추(府中) 청년의 집" 재판이란 무엇인가?

"활동하는 게이/레즈비언 단체 (OCCUR)"는 1986년에 결성된 레즈비언/게이 그룹이고 수도(도쿄) 권을 중심으로 약 350명 회원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의 자유와 권리를 획득하기를 목적으로 동성애자의 네트워크만들기, 동성애자에 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의 보급,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의 해소등을 노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결성 이래, "에이즈 예방법" 제정 반대운동, 94년에 열린 "요코하마(横浜) 국제 에이즈 회의"를 비롯해서 HIV/AIDS 에 관련된 활동도 일관해서 전개해왔습니다.

"후추(府中) 청년의 집 재판"은 OCCUR가 90년 2월에 연수합숙을 위해서 "후추 청년의 집"을 숙박 이용했을 때 발생한 차별사건이 발단입니다.

○ 동성애자의 공공시설 이용을 거부

1990년 2월 OCCUR는 도쿄도립 사회 교육 시설 "후추(府中) 청년의 집"에서 합숙했습니다. 도쿄도립 청년 집에서는, 숙박하는 단체가 서로 자기를 소개하는 "리더 모임"이 열리고 있습니다. OCCUR는 이 리더 모임에서 제가 동성애자 단체이고 인권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그 리더 모임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OCCUR 멤버가 목욕중 모욕적인 짓을 받거나 시트를 받으러 갔을 때 "호모"라면서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수많은 모욕적인 일을 당했습니다. OCCUR는 시설 직원에게 적절한 대응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열린 리더 모임에서는 시설 직원이 불공평한 대응을 하거나, 기독교 단체등 멤버들이 동성애자를 중상하는 발언을 하는 등, 차별적인 행위는 점점 더 격심해졌습니다.

OCCUR는 같은 해 5월 합숙 때 후추 청년의 집을 다시 이용하려고 사용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다가 청년의 집은 신청서류 받기를 거부. 놀란 OCCUR 멤버들이 요구해서 열린 후추 청년 집과의 교섭에서, 세가와(瀬川) 소장은 "도쿄도 주민들의 합의를 못받아 있는 귀단체 이용은 거절하려고 한다"라고 선언. OCCUR는 도쿄도교육위원회에 대해서 청년의 집 이용에 관해서 청원을 했다가 4월 26일 도쿄도 교육위원회는 "남녀 동성의 원칙"을 근거로 복수의 동성애자의 청년의 집 이용 거부를 결정했습니다.

○ 도쿄 지방재판소에 있어서의 심리

동성애자는 청년의집을 이용하지 못한다! 이런 차별적인 자세에 대해서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동성애자가 행정기관을 상대로 인권에 관련된 재판을 하는것은 일본에서는 첫 번째였습니다. 재판 비용도 없고 동성애자로서 coming out한 변호사는 없어서 재로에서의 출발. 해소를 향해서 OCCUR는 1년 준비했습니다.

사건으로부터 1년, 91년 2월 12일 도쿄 지방재판소에 도쿄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재판을 제소했습니다.

도쿄도는 "남녀 동성의 원칙"을 핑계로 삼고 동성애자 문제에 언급하는것을 피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한편, OCCUR는 동성애자 인권을 획득한 경험이 많은 미국 샌프랜시스코 교육위원장 팀 아미아노를 증인으로 신청, 채용시키기에 성공. 귀중한 증언을 얻거나, 동성애자 인권을 정면으로 주장하는 법정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도쿄지방재판소 판결은 94년 3월 30일에 내려졌습니다.

판결은 도쿄도 이용거부처분을 위법으로 단정하고 OCCUR에 대한 손해배상을 도쿄도에 명령하는 획기적인 판결이었습니다. 그 위에 판결에서는 "동성애와 동성애자에 관해서" 라는 1항목이 게재되어,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은 용인할 수 없는 것, 그들의 인권은 확립되어야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제2심의 전개

도쿄도는 제1심에 불복해서 도쿄고등재판소에 공소. 그리고 성적의식이 아직 발달단계에 있는 청

소년이 동성애자에 관한 지식을 얻는 것은 청소년을 혼란시키는 것이므로 『내셔널 리뷰』 1990년 1월호

OCCUR는 요코하마(横浜)시나 카나가와(神奈川) 현이 운영하고있는 "청년의 집"을 실제로 숙박이 없어서 동성애자가 이용해도 아무 문제도 안 생기는것을 입증했습니다. 또 외국에 있어서의 동성애자에 관한 교육연구와 그 실천 예를 증거로 제출해서 동성애자의 존재가 청소년에 대해서 혼란을 미칠 수는 없고 오히려 동성애자를 배제하는것이 청소년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증인신문에서는 도쿄도 측에서는 타카무라 노부오 (高村延男) 도쿄도 생애학습부장, OCCUR 측에서는 야나기바시 아키토시 (柳橋晃俊) 재판 특별대표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타카무라씨가 "남녀 동실의 원칙"에 고집해서 본색을 드러낸것과 반대로 야나기바시씨는 도쿄도 측의 부당성을 명확하게 증언했습니다.

제2심은 내년 1월에 결심, 봄에는 판결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주목을 부탁드립니다.

97-04-17-23:36 +81332297880 97-04-17-23:36

《후추 (府中) 청년의 집》 재판 지원편지 집필 의뢰

동성애자 인권을 물는 일본에 있어서의 첫 재판인, "후추 청년의 집 재판"에 대한 평소의 지원과 관심을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후추 청년의 집" 재판은 제2심이 시작된 이래, 약 2년 경과했습니다. 이미 증인신문도 끝나고 재판은 다음 봄 결심과 판결을 향해서 종반전에 들어섰습니다.

도쿄도는 1990년에 동성애자의 "청년의 집" 숙박이용거부를 결정한 이래, 동성애나 성을 둘러싼 일본사회의 상황이 큰 변화를 거치고 또 제1심 판결에서 거부결정이 위법으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 배제 정책을 바꿀 자세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편, 이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관들도 OCCUR 측 증언을 들어서 "동성애자의 성적 행위는 무인가"고 질문을 하는 등, 그렇다고 해서 그렇이 반드시 이 문제의 핵심을 찌르고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상황 증에서 동성애가 권리를 옹호하는 판결을 획득하기 위해서, 우리는 동성애자의 국제적인 연대를 필요로 합니다. 이 재판이 세계적인 주목을 모으고 있는 것을 재판관들이나 도쿄도에 인식시키는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하 재판소와 도쿄도에 보내는지원 편지의 일례 내용요점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장에 여러 변경을 가하셔도 괜찮습니다. 귀단체 나라 사정, 귀국에 있어서의 동성애자 상황을 문장에 반영시키면서 내용이 독창적인 편지를 일본어 또는 영어로 쓰시기 바랍니다. 귀단체와 관계있는 타단체, 개인들에 대해서도 협력을 요청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활동하는 게이/ 레즈비언 단체
(動くゲイとレズビアン(の)会)

(Japan Association for the Lesbian and Gay Movement, OCCUR)

주소: 日本国 164 東京都中野区本町4-43-4 アルカリハウス (Alkali House)

Phone: +81-3-3383-5556 / Fax: +81-3-3229-7880

E mail: occur@kt.rim.or.jp

* 지원의 편지를 써주신 경우 그 편지의 복사 한 부를 당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쿄도에 대한 지원 편지 내용요점》

1. 도쿄도가, "청년의 집" 동성애자 숙박거부결정을 위법으로 인정한 제1심 판결에 따르지 않고, 그 후 2년 이상 지나간 지금도 동성애자를 청년의 집 배제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에 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2. 도쿄도가 이러한 정책을 취하고 유지하는 것은, 동성애자의 권리옹호를 달성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반한다. 도쿄도는 "남녀 동실의 원칙"을 동성애자에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동성애자가 사실상 시설에서 배제 당하는 정책은 명확한 동성애자차별이다.

3. 동성애자가 숙박하 경우 다른 청소년 단체나 부모들이 "불안"을 느낀다는 도쿄도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만일, 이러한 근거 없는 "불안"이 존재한다라면서, 행정기 먼저 하여야 하는 일은 시설에서의 동성애자 배제가 아니고, 인간 성적지향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보급 계발 시키고 청소년단체들이나 부모들의 불안을 없애는 일이다.

1. 도쿄도는 즉각 재판공소를 철회하고, 동성애자를 시설에서 배서하는 정책을 그만두고, 동성애자도 포함하면서 도쿄도 주민 권리를 옹호하는 행정으로 자세를 전환하여야 한다.

2. (이 문면은 아오시마 유키오(青島幸男) 도쿄도 지사에 대한 편지에 쓰십시오) 동성애자 "청년의

97-04-17-23: 36

+81332297880

90-31 05

1" 사용권을 회복시키는 처치는, 아오시마 지사로 하여금 "시민권"로써의 이미지를 회복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서 도쿄도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감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1지 수신인:

東京都知事 青島幸男

日本国 160 東京都新宿区2-8-1 東京都庁 東京都知事室

東京都教育委員長 石川忠雄

日本国 160 東京都新宿区西新宿2-8-1 東京都庁 東京都教育委員会

<도쿄 고등재판소에 대한 지원의 편지>

1. 지금 도쿄도와 OCCUR 사이에서 다투지는 "후추 청년의 집 재판"에 있어서는, 시민의 일원인 동성애자가 다른 일반시민과 같이, "청년의 집" 설치목적에 따라서, 시설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분다.

2. 문제가 된 1990년 OCCUR 합숙은 동성애자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이 목적이며, "후추 청년의 집" 설치목적에 반한 취지로 행해진 것은 결코 아니다. 도쿄도는 "남녀 동질의 원칙"을 동성애자에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동성애자가 사실상 시설에서 배제 당하는 정책은 명확한 동성애자차별이다.

3. 동성애자가 숙박한 경우, 다른 청소년 단체나 부모들이 "불안"을 느낀다는 도쿄도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만일, 이러한 근거 없는 "불안"이 존재한다라면서, 행정기 먼저 하여야 하는 일은 시설에서의 동성애자 배제가 아니고, 인간 성적지향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보급 계발 시키고 청소년단체들이나 부모들의 불안을 없애는 일이다.

4. 우리는 고등재판소가 본건에 관해서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만한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지 판소 주소:

裁判長 岩佐善巳 矢崎秀一(아사키 히타이지)

裁判官 山崎健二

裁判官 彦坂孝孔

日本国 100 東京都千代田区霞ヶ崎1-1-4 東京都高等裁判所第4民事部

수신: _____
발신: 한국 동성애자 인권운동 협의회

1997. 6. 14

일시 ; 1997년 6월 18일 오후 2시
장소 ; 일본 대사관 앞 100m 바른인론 맞은편
예상인원 ; 30명
문의처
동인협 산하 여성 동성애자 인권운동 단체 '끼리끼리': 363-7213
동인협 산하 남성 동성애자 인권운동 단체 '친구사이': 464-7916
담당자: 015-960-2199 (윤석민)

동인협의 망의공문 전문
한국 동성애자 인권운동 협의회 (동인협)

수신: 동경도 고등재판소 제4민사부
발신: 한국 동성애자 인권운동 협의회

- 우리는 한국 동성애자 인권운동 협의회로서, 일본 내의 동성애자 인권단체의 하나인 OCCUR가 동경도의 '청년의 집' 시설이용 거부에 맞서 1991년부터 지난한 재판투쟁을 계속 해 오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올 7월 결심 공판을 지대한 관심으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 인류역사상 다수라는 이름으로 인간에 대한 억압과 편견을 법적으로 제도화한 예를 우리는 무수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반인류적, 반인권적 행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한가운데 동성애, 동성애자의 인권이 놓여 있습니다.
- 성을 매개로 한 억압과 편견! 그것은 한마디로 지배적 질서와 사회 통념으로 눈가림한 야만주의와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리적으로 가장 근접한 일본 역시 동성애,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너절한 쓰레기쯤으로 치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분노합니다. 동성애와 동성애자를 혐오하고, 조롱하며 웃음거리로 만들어 싸구려 상품으로 팔아먹는 TV 프로그램에서부터 이런 동경도의 '청년의 집' 시설 이용 거부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동성애자들 역시 동경도의 시민이며, 자신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인 것입니다.
- 우리는 동경도와 동경도 교육위원회의 '청년의 집' 시설이용 거부를 동성애, 동성애자에 대한 인권 침해이며, 동성애자의 정체성을 짓밟는 과립치한 행위로 규정합니다. 동경시의 '청년의 집' 시설 이용 거부 사유, 즉 '청소년의 건전한 교육에 장애가 된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관행에 대한 비교육적인 신념이며, 문제의 본질에 대한 공색한 변명이며, 회피입니다.
- 우리는 인간에 대한 모든 억압과 편견을 반대하는 인간으로서, 그리고 그들과 가장 가까운 나라에서 살아가는 동성애자로서, 이번 판결이 지금껏 일어났던 억압의 재생산에 기여하는 판결이 아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 그리고 이제 아시아권에서 벌어지는 동성애, 동성애자에 대한 반인권적 행위들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동시에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성적 정체성에 대해 공포와 절망으로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것이야말로 동성애자를 억압하는 위악적이고, 위선적인 사회질서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임을 선견하고 선동할 것입니다. 억압적 사회의 상처와 분노로부터 새로운 희망과 보다 나은 민주적 공동체를 위해 연대하고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OCCUR 재판투쟁 지지시위 보도자료-동인협

The Korean Association of Gays and Lesbians for Human Rights

To : Tokyo Civil Courts (Div. 4)

From : The Korean Association of Gays and Lesbians for Human Rights

일본 OCCUR 재판투쟁 지지시위

수신: _____
발신: 한국 동성애자 인권운동 협의회 1997. 6. 14

OCCUR는 1986년에 결성된 동경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레즈비언·게이 인권운동 그룹입니다.

1990년 2월 이 단체가 동경 도립 사회 교육 시설 '후추(府中) 청년의 집'에서 합숙하는 도중 수많은 모욕적인 일을 당했으며, 다음에는 심지어 신청 서류의 제출을 거부당하는 등 동성애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이에 OCCUR는 동경도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를 했고, 1심에서 '동성애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은 용인할 수 없는 것, 그들의 인권은 확립되어야 한다'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현재는 2심이 전개되고 있으며, 동인협은 이를 지지하기 위해 항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6월 18일에는 지지시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시: 1997년 6월 18일 오후 2시
장소: 일본 대사관 앞 100m 바른언론 맞은편
예상인원: 30명

문의처 동인협 산하 여성 동성애자 인권운동 단체 '끼리끼리': 363-7213
동인협 산하 남성 동성애자 인권운동 단체 '친구사이': 464-7916
담당자: 015-960-2199 (윤석민)

OCCUR 재판투쟁 지지시위 보도자료-동인협

1. We as the representatives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ays and Lesbians for Human Rights are fully aware of the fact that one of the major Japanese Gays and Lesbians organizations, OCCUR has been in a legal dispute since 1991 due to unfair discrimination by the "Youth House" on the use of its facilities.

2. We are fully aware of the fact that throughout the history of the humankind, that often unfair discriminations and destructions were and are justified in the name of "majority rule". Consequently, to this day, there are numerous instances of systemic infringements of the human rights. And the gay and lesbian movement is also a victim.

3. We are mad at the irrational, barbaric practices of imposing control and restrictions based on sexual preferences and stereotypes.

We are also angry at the treatment that our brothers and sisters are getting by the unfair portrayal of gays and lesbians by the Japanese media, commercializing and ridiculing.

In actual, gays and lesbians are also citizens of Japan, Tokyo and are hard working, tax paying members of the society.

4. We define the discrimination show by the city of Tokyo and "Youth House" as acts aimed at destroying the gay and lesbian identity and a human rights violation.

The rationale presented by the city of Tokyo was that allowance of gays and lesbians into above mentioned facilities would "intrude upon healthy education of the youth", an antiquated notion.

The latter rationale is merely a cover up for the misunderstandings and ignorance rampant in the Japanese society and merely based on groundless, irrational fear.

5. We as advocates of human rights in general and as citizens of the neighboring country, Korea, demand that the upcoming decision will not become a contributing factor to the reproduction of control and human right violations.

6. We declare that from this day on, we will not tolerate any infringement on human rights, be it in Asia or worldwide. We will stop being silent.

We will speak out, forming alliances with other human rights organizations as well as worldwide gay and lesbian organizations. in the nearest possible future, we will be able to overcome the present forces of mess of control, discrimination and human right violations. Thank you.

동인협의 항의공문 전문

한국 동성애자 인권운동 협의회 (동인협)

수신: 동경도 고등재판소 제4민사부

발신: 한국 동성애자 인권운동 협의회

1997. 6. 14

1. 우리는 한국 동성애자 인권운동 협의회로서, 일본 내의 동성애자 인권단체의 하나인 OCCUR가 동경도의 '청년의 집' 시설이용 거부에 맞서 1991년부터 지난한 재판투쟁을 계속 해 오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올 7월 결심 공판을 지대한 관심으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14년 투쟁*

2. 인류역사상 다수라는 이름으로 인간에 대한 억압과 편견을 법적으로 제도화한 예를 우리는 무수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반인류적, 반인권적 행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한가운데 동성애, 동성애자의 인권이 놓여 있습니다.

3. 성을 매개로 한 억압과 편견!

그것은 한마디로 지배적 질서와 사회 통념으로 눈가림한 야만주의와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리적으로 가장 근접한 일본 역시 동성애,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너절한 쓰레기 줍으로 치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분노합니다.

동성애와 동성애자를 혐오하고, 조롱하며 웃음거리로 만들어 싸구려 상품으로 팔아먹는 TV 프로에서부터 이번 동경도의 '청년의 집' 시설 이용 거부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동성애자들 역시 동경도의 시민이며, 자신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인 것입니다.

4. 우리는 동경도와 동경도 교육위원회의 '청년의 집' 시설이용 거부를 동성애, 동성애자에 대한 인권 침해이며, 동성애자의 정체성을 짓밟는 파렴치한 행위로 규정합니다. 동경도의 '청년의 집' 시설 이용 거부 사유, 즉 '청소년의 건전한 교육에 장애가 된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관행에 대한 비교육적인 신념이며, 문제의 본질에 대한 궁색한 변명이며, 회피입니다.

5. 우리는 인간에 대한 모든 억압과 편견을 반대하는 인간으로서, 그리고 그들과 가장 가까운 나라에서 살아가는 동성애자로서, 이번 판결이 지금까지 일어났던 억압의 재생산에 기여하는 판결이 아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6. 그리고 이제 아시아권에서 벌어지는 동성애, 동성애자에 대한 반인권적 행위들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동시에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성적 정체성에 대해 공포와 절망으로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것이야말로 동성애자를 억압하는 위악적이고, 위선적인 사회질서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임을 선전하고 선동할 것입니다.

억압적 사회의 상처와 분노로부터 새로운 희망과 보다 나은 민주적 공동체를 위해 연대하고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